

가을 밤 집에서 만나는 동대문 문화유산

- 18일부터 2021 동대문구 문화재야행 ‘월하홍릉’ 온라인 개최...13일부터 예약-
- 동대문구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 등...영취원·홍릉주택 소개, 약선음식 쿠킹클래스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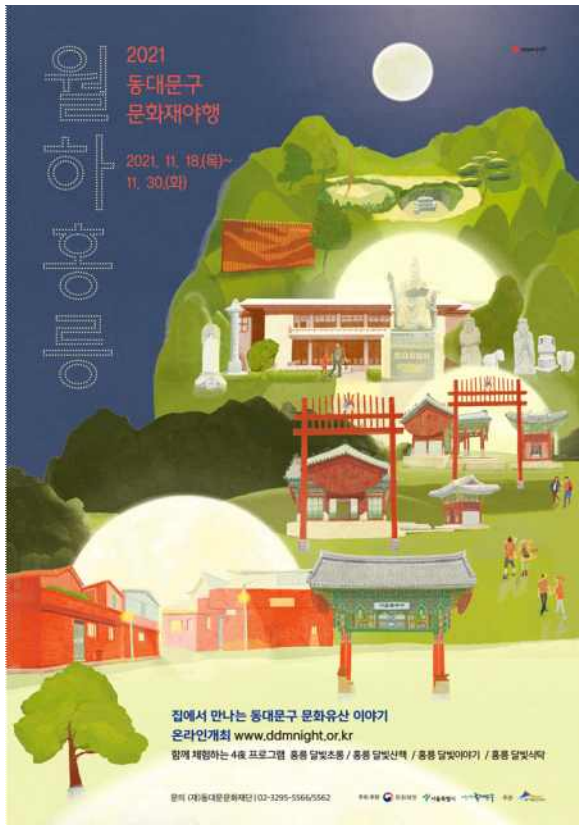
(재)동대문문화재단(대표이사 구본호)은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간 한밤의 문화재 체험행사인 ‘동대문구 문화재야행-월하홍릉’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올해 처음 개최하는 ‘동대문구 문화재야행-월하홍릉’은 ‘집으로 찾아온 동대문구 문화유산’이라는 주제로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, 홍릉숲, 청량리 홍릉주택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대문구 근·현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. 당초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.

행사는 야경(夜景), 야로(夜路), 야사(夜史), 야식(夜食)을 테마로 ▲홍릉의 밤을 밝히는 카드 만들기, 달빛초롱 ▲유튜브 영상으로 집에서 문화재를 탐방하는, 달빛산책 ▲동대문구의 역사를 퀴즈로 알아보는, 달빛이야기 ▲서울약령시의 약재를 활용한 약선음식 밀키트로 진행하는 쿠킹클래스, 달빛식탁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꾸러진다.

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, 13일부터 17일까지 동대문구 문화재야행 누리집(www.ddmnight.or.kr)에서 신청을 받는다.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문화재야행 누리집과 인스타그램(@ddm_night), 유튜브 채널(동대문구 문화재야행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유덕열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(동대문구청장)은 “동대문구 문화재야행-월하홍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역사·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감상하며 힐링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”며 “내년에는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이 동대문구 문화재야행을 함께 즐기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▲동대문구 문화재야행 월화홍릉 포스터